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18.(수) 19:00 배포 2026. 11. 18.(수)

2035년까지 전 세계 전기화 35% 목표, 라이즈 아시아로 이행 협력 본격화

- 한-국제에너지기구,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부대행사 개최하여 라이즈 아시아(RISE AISA) 국제무대에 첫선
- '35 바이(by) 35' 국제사회 전기화 목표를 아시아의 청정전력·전력망 협력으로 구체화
- 호주·필리핀 등 참여, 에너지 안보 강화와 청정 전기화 협력 과제 논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1월 18일 오후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31)가 열리는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공동으로 회복탄력적 통합적 에너지 안보 구상인 '라이즈 아시아(RISE ASIA*)' 부대행사를 개최한다.

* RISE ASIA(Resilient & Integrated Strategy for Energy Security in ASIA): 전통적 에너지·자원 수급, 전력시스템 안정성 등을 통합 진단하여 아시아 에너지 위기대응 역량과 회복탄력적 전력시스템 강화를 지원하는 협력 구상

이번 행사는 지난 11일 우리나라가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의장국(튀르키예·호주)이 추진하는 '35 바이(by) 35' 전 세계 전기화 서약에 동참한 데 이어, 전 세계 전기화 목표를 아시아 지역의 실질적인 협력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35 바이 35'는 2035년까지 전 세계 최종에너지 소비 중 전력 비중을 35%까지 확대하기 위한 국제협력 구상으로, 의장국이 이번 당사국총회의 핵심 실천 의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전 세계 전기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청정전력 공급 확대뿐 아니라 안정적인 전력망 구축과 에너지 안보 강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아시아 지역은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높고, 경제성장과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발전에 따라 전력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청정 전기화와 회복력 있는 전력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가 간 협력이 중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나라와 국제에너지기구가 공동 추진하는 '라이즈 아시아(RISE ASIA)'는 △에너지 위험정보 공유 및 위기대응, △청정 전기화 협력, △개방적·포용적 에너지 정책대화 등 3대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아시아의 청정전기화와 에너지 안보 강화를 지원한다.

'라이즈 아시아'는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과 파티 비롤(Fatih Birol)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의 면담에 이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제에너지기구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본격 추진되었다. 이번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부대행사는 이러한 협력 구상을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아시아 주요국과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첫 국제행사라는 의미가 있다.

당사국총회 행사장 내 국제에너지기구 홍보관에서 개최되는 이번 부대행사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메리 버스 워릭(Mary Burce Warlick)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차장을 비롯하여, 펠릭스 윌리엄 푸엔테벨라(Felix William Fuentebella) 필리핀 에너지부 차관, 호주 가이아 풀스턴(Gaia Puleston) 호주 기후에너지환경수자원부 차관보, 응위옌 비엣 선(Nguyen Viet Son) 베트남 산업무역부 차관보, 송재도 에너지경제연구원장, 니콜 크란츠 독일국제협력공사(GIZ) 필리핀 사무소 기후행동 부문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제에너지기구가 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안보 현황과 '라이즈 아시아'의 주요 협력 방향을 소개하고,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자국의 에너지 안보 현안과 향후 협력 수요를 논의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청정전기화가 기후위기 대응뿐 아니라 미래 에너지 안보를 위한 핵심 과제임을 강조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 경험과 국제에너지기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라이즈 아시아'를 '35 바이 35' 전 세계 전기화 목표의 아시아 지역 이행을 촉진하는 핵심 협력의 발판(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힌다.

또한, 청정전기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 기반시설(인프라) 투자가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라이즈 아시아'를 통해 기술·기반시설·금융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워릭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차장은 환영사를 통해 동남아시아의 급증하는 전력수요와 화석연료 수입 의존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청정 전기화 확대가 필수적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동남아시아의 전력화율을 현재 약 25%에서 기존 기술만으로도 약 37%까지 높일 수 있으며, 2035년 연간 연료 수입비용을 2025년 대비 약 30%에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어 아태지역 국가 장관급 인사와 및 국내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청정전기화 확대와 전력시스템 회복력 강화 등 국가별 협력 가능성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여건과 협력 수요를 바탕으로 우선 협력과제와 후속 이행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아시아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에너지기구와의 공동연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라이즈 아시아가 전 세계 전기화 목표의 아시아 지역 이행을 뒷받침하면서, 에너지 안보와 청정에너지 전환을 함께 촉진하는 실질적인 국제협력의 발판(플랫폼)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붙임 1. 라이즈 아시아 부대행사 개요.
2. 라이즈 아시아 영문 책자.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국제협력팀	책임자	과 장	최한창 (044-201-6600)
		담당자	사무관	안호정 (044-201-660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1 **라이즈 아시아 부대행사 개요**

□ **(행사명)** RISE ASIA: 회복탄력적·통합적 아시아 에너지 안보 협력 구상

○ **(주제)** 아시아 지역 에너지 전환 및 역내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RISE ASIA 비전·협력체계 소개

□ **(일시·장소)** '26.11.18(수), 13:00-14:00(현지 시간) / IEA홍보관

□ **(행사 일정)**

시 간	행 사 내 용
13:00~13:05('5)	◆ IEA 사무차장 환영사 및 행사 개요 설명 · 글로벌 에너지 안보 변화와 지역 협력 촉진을 위한 IEA의 역할 소개
13:05~13:10('5)	◆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개회사 · 아시아 에너지 안보협력을 위한 한국의 비전 및 한-IEA 협력 필요성
13:10~13:25('15)	◆ IEA 선임전문가 기조발언 · 아시아 에너지 안보와 회복력 강화를 위한 RISE ASIA 비전, 3대 협력축 소개
13:25~13:35('10)	◆ 아세안 장관 발제 · 국가적 관점의 주요 관심사 및 RISE ASIA 산하 미래 협력 분야 제언
13:35~13:55('20)	◆ 패널토의 : 정책, 전력시스템 및 이행 관점에서의 아시아 에너지 협력방안 논의 ❶ RISE ASIA 이니셔티브 하 한-IEA 협력 우선순위 ❷ RISE ASIA 3대축에 대한 협력 구상안
13:55~14:00('5)	◆ 요약 및 마무리

붙임 2 라아즈 아시아 영문 책자

Overview of RISE ASIA (Resilient & Integrated Strategy for Energy Security in Asia)

Building resilient energy systems for Asia's growth in an era of geopolitical risks and electrification

Republic of Korea–IEA cooperation on energy crisis response, clean electrification and inclusive policy dialogue

BACKGROUND AND RATIONALE

- Middle East disruptions have exposed the geopolitical risks of dependence on energy imports. Energy security now encompasses power systems, clean electrification and climate resilience.
- For all of Asia demand drivers are quite diverse, but population and economic growth in many countries are the key drivers. Surging electricity demand including from cooling, transport, advanced manufacturing and data centres is making resilient and flexible power systems essential to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energy security.
-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IEA** are advancing **RISE ASIA** as a new framework for regional energy-security cooperation.

THREE PILLARS OF COOPERATION

Key themes and activites could linclude:

01

Energy Risk Information Sharing and Emergency Response

- Integrated assessment and monitoring of energy markets, power systems and clean energy supply chains.
- Link risk analysis to information sharing, early warning, emergency response procedures for crises impacting power systems.
- Conduct joint emergency preparedness exercises to test emergency-response procedures for energy supply disruptions and power shortages.

02

Clean Electrification Cooperation for Future Growth

- Integrate reliable clean power supply, growing demand for electrification, and power-market and grid-operation reforms.

Supply Clean generation, grids/HVDC, storage, flexibility, interconnection and equipment.

Demand Barriers to electrification in industry, buildings and transport; energy efficiency, demand response (DR), distributed energy resources and smart charging.

Markets Prices/tariffs, grid access, power trade, ancillary services, system operations and cross-border rules.

03

Open and Inclusive Energy Policy Dialogue

- Share energy information and lessons about emergency response through an open, regional policy dialogue platform.
- Identify inclusive initiatives on energy access, energy poverty and affordability.
- Connect system and market operators and regulators across Asia and other regions to share operational and emergency-response experience.